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문학예술이 강성국가건설에서 혁명적진군의 나팔수, 힘있는 추동력이라는 사상의 정당성

김 정 미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문학예술이 노는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사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은 강성국가건설에서 혁명적진군의 나팔수, 힘있는 추동력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문학예술이 혁명적진군의 나팔수, 힘있는 추동력이라는 사상의 정당성은 무엇보다먼저 문학예술의 사명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적극 복무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기본사명이다.

문학과 예술이 없는 생활을 생각할수 없으며 문학예술은 사람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이 유족해질수록,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높아질수록 문학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지며 문학예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욱 커지게 된다.

사람이 자주적인 인간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세계와 자기자신을 알아야 하며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사람은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통하여 생활을 더 잘 알게 되고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배우게 되며 세계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

그쳐나가게 된다.

문학의 본성자체도 인간과 생활을 그리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데 있다. 문학예술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 투쟁의 진리를 깨우쳐주며 생활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감정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키워주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비록 인간과 생활을 생동하게 그린 작품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사람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생활에 대한 폭넓고 깊은 지식을 주지 못하며 교상한 틀리와 아름다운 정서를 안겨주지 못하면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오늘 문학예술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을 위한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벌어지고있는 우리의 력사적진군길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바로 여기에 주체문학예술의 사명이 있다.

오늘 우리 문학은 세기를 주름잡으며 기적과 위훈을 새겨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발양되는 영웅적위훈과 아름다운 소행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진실하게 그려냄으로써 오늘날 사람은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옳바른 해답을 주어야 한다. 시대의 물음에 옳바른 해답을 주는 문학예술만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할수 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은 오늘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섰다.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타오르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종지부를 찍으며 모든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혁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으며 오직 우리의 힘과 기술로 첨단을 향

해 날아오르는 혁명적기풍이 일터마다에 내려치고있다. 우리의 투쟁은 명실공히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이 마땅히 새로운 높은 단계, 들끓는 시대를 선도하고 불러일으키는 나팔수, 힘있는 추동력이 되어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문학예술이 인민대중을 당의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선도하는 나팔수, 추동력이라는 사상은 문학예술의 사명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정당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문학예술이 강성국가건설에서 혁명적진군의 나팔수, 힘있는 추동력이라는 사상의 정당성은 다음으로 문학예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는데 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가장 큰 힘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이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이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총분출시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게 하는 기적창조의 위력한 무기이다.

문학예술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자면 정치사상교양적기능, 생활인식적기능, 문화정서교양적기능을 높여야 한다.

혁명적인 문학예술은 사람들에게 대한 정치사상교양과 생활인식의 힘있는 무기로 될뿐아니라 문화정서교양의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사람들은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통하여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우리 당, 우리 사상, 우리 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그것을 더욱 빛내이려는 높은 자각과 신념을 가지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을 위한 대건설전투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혁명적락관주의를 발휘하게 된다.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 비록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생활에 대해서도 깊이 리해하고 인간생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게 되며 보다 훌륭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게 된다. 뿐만아니라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정서를 체험하게 되고 문화성과 인간성을 배우게 되며 뜨겁고 열렬한 심장을 가지고 사업과 생활을 더욱 활력있게 진행해나가게 된다.

문학예술의 이러한 정치사상적교양기능, 생활인식적기능, 문화정서교양적기능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을 힘있게 추동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이 유족해질수록,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높아질수록 철학적심오성과 사상예술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는 문학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성은 끊임없이 높아지며 문학예술이 인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생활력도 더욱 커지게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총대를 틀어쥐고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고있으며 승리할 래일을 확신하며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해나가고있다.

문학예술이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적기능, 생활인식적기능, 문화정서교양적기능을 더 높이 발휘하여야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다.

문학예술에서 한평생 이민위천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인민사랑의 새 전설을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

위인적품모를 감동적으로 형상하여야 모든 사람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흠모심을 안고 오직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갈 굳은 각오와 신념을 확고히 가지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보건 말건 당이 바라는 곳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며 당정책을 결사의 정신으로 관철해나가는 선군시대 참된 인간들의 모습과 미래를 사랑하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사람들이 품만한 정서와 활력, 뚜렷한 생의 좌우명을 가지고 오늘의 시련과 난관을 헤쳐나가는데서 자신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문학예술은 세계를 놀래우며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거세찬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당의 령도의 현

명성,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 승리의 필연성을 예술적으로 더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해나가게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학예술이 강성국가건설에서 혁명적진군의 나팔수, 힘있는 추동력이라는 사상은 문학예술의 정치사상교양적기능, 생활인식적기능, 문화정서교양적기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정당한 사상이다.

우리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을 혁명적진군의 나팔수, 추동력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투쟁하는 시대와 숨결을 같이하며 대오의 앞장에서 나가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창작기풍과 창조기풍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